광주시 올 최고 시책은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올해의 베스트 7’ 선정
2위 광주형일자리 법인 설립
상생카드·수영대회 성공 順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착공이 올해 광주시 최고의 시책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주요 시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올해의 베스트 7’을 선정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난해 건설 여부 공론화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0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시공사와 광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위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연내 자동차 공장 착공이 뽑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데 이어 26일에는 자동차공장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광주 상생 카드 성공적 정착이 선정됐다. 전국 최초 순수 카드형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3월에 출시돼 8개월 만에 카드 판매액 6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안전 모범도시 광주 실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등 직원 채용 공공성 확보 등이 선정됐다. 올해의 베스트 7은 각 실·국을 대상으로 우수시책 24건을 제출받아 시민권익위원회, 협업 조정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시민, 공무원, 시의원, 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관정 협치로 광주형 복지 성공하자”

광주 민간·행정·의회 사회복지관계자 180명이 참여한 ‘2019 복지협치 전체회의’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이 “광주형 복지 모델 실현, 민관정 협치로 이뤄내자”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복지협치위원들에게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 광주지역 실정을 반영한 복지 빅데이터 구축,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광주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에 복지혁신팀, 감사위원회 사회복지감사팀 신설 등이 담겼다. 〈광주복지재단〉

동구, 29일 동구청 회의실서 과학문화 사이언스 버스킹

광주시 동구가 29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동구청 6층에서 ‘과학문화 사이언스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동구가 주최하는 과학문화 사이언스 버스킹은 초등학교·중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강연과 쇼, 단막극 등 체험형 퍼포먼스가 무료로 펼쳐질 예정이다. 음악과 난타, 버블쇼 등 과학실험과 공연을 접목한 ‘사이언스 판타지’를 비롯해 유명 판타지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을 과학원리와 함께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과학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이번 과학쇼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구 안전모니터단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 23일 서구청 민방위체험센터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있다. 2009년 구성된 서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서구내 안전위험요소 신고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460여 명이 활동중이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환경공단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광주환경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제1하수처리장 주변 유덕동, 덕흥동 소재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10명은 유덕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 가정 3곳을 방문해 출입문과 창호, 합선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을 교체했다. 실내외 등기구도 새로 설치해줬다. 비용은 직원들이 갹출해 마련했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주변에 직접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시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봉사를꾸준히 하고 있다.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사랑 봉사단’을 통해 사랑의 무료 배식봉사, 농기계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결식노인 무료 급식 부적절 운영 무더기 적발

광주시 감사위, 보조금 부당 사용·부실 시설 등 18건 위법

결식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료급식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광주 지역 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특정감사를 통해 18건(시정 11·주의 7)의 위법사항을 적발, 53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 노인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려 매년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다. 남구의 한 시설은 식자재 구매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300만원을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남구의 다른 시설은 94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비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산구의 한 시설은 지원단가인 2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와 광산구의 시설은 일일 평균 이용자가 각각 10%, 20%에도 미치지 못했고 무료 급식 대상자와 일반인의 구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의 한 시설은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23명에게 2016년부터 3년간 400만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사항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식중독 등 취약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다. 운영일지와 위생·식품 관리·식자재 등의 검수서 작성이 부실한 시설도 다수 적발됐다.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도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식자재 납품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민점검단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 2대 적발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상시 단속·안전교육 강화 조치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불법 운행 승강기를 일제 점검해 2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들 승강기 관리주체에 즉각 운행 정지명령을 내리고, 관할 자치구에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승강기에 운행정지 스티커도 부착했다.

일제 점검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 정지 지시를 받은 501대(사업장 333곳)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민점검단이 불법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운행이 의심되는 사업장(10곳)에 대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시민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유관기관의 2차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이뤄졌다.

광주시는 승강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형사고발 대상인 불법운행 승강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 안전 뉴거버넌스(시민단체, 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광주·전남·전북 담당자, 공단 관계자 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기는 남구맛집입니다”…30곳 추가 지정

상반기 20곳 이어 50곳 운영

광주시 남구가 거리 안전과 맛 모두를 책임질 지역 30곳의 음식점을 ‘남구맛집’으로 지정했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내 맛집은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20곳을 포함해 총 50곳으로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 3곳, 중식 1곳, 일식 1곳이었다.

하반기 남구 맛집에는 지역내에서 총 69곳의 음식점이 참여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남구는 음식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차례에 걸친 현장 심사와 평가표에 따라 30곳을 선정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쟁력 향상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의 맛과 신선도, 손님에 대한 응대 서비스,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 영업 신고사항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남구 맛집의 대표 메뉴는 낙지 요리를 비롯해 황태 미역정식, 메기 매운탕, 해물 갈비찜, 간장게장 정식, 코다리찜, 담양 돼지숯불갈비, 콩국수, 서대회 무침, 묵은지 감자탕, 아귀찜, 청국장 쌈밥 등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